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12일(금)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	• 해양산업팀장 나민환 ☎440-4846 • 담당자 장연희 ☎440-4848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극지 궁금증 해결해볼까?

- ‘사진으로 떠나는 극지탐험’ 전시회 개최 -

- 15·16일 양일간,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한 극지현장 소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극지 사진 전시회 ‘사진으로 떠나는 극지 탐험’을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남·북극의 생생한 현장 사진 전시를 통해 극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관심을 높이고 극지 중심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극지의 동·식물과 빙하의 자연환경, 극지연구 활동 등 남극과 북극의 생생한 현장 사진 50여 점과 영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극지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공간이며 최대 현안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세계적으로 극지에 대한 과학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남·북극 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 극지연구 시설을 운영하는 극지연구소가 소재한 곳으로서 극지 과학연구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상의 끝인 남·북극과 시민들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극지 환경 및 연구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붙임1] 2021년 극지사진 전시회 포스터 1부.

